

토박이 외투기업 기(氣) 팍팍 살린다

김승수 전주시장, 삼양화성 전주공장 방문... 기업경영 애로사항 청취·근로자들 격려

전주시가 토박이 외투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3일,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토박이 기업인 삼양화성 전주공장을 방문,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기업 기 살리기'는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 시장이 이날 방문한 삼양화성은 전주시민 130여명을 고용한 중견기업이자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 1989년 설립 이래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불철주야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전주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온 삼양화성의 경영진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팍팍한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지역대표 기업으로 뿌리내린 기업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전주의 으뜸 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기

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왔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시무식을 생략하고 기업 기 살리기 현장방문과 함께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에서 기 살리기 및 지원방안 회의를 갖는 것으로 새해 첫 업무를 대신하는 등 기업 기 살리기에 힘써왔다.

그 결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예산 지원금보다 10배 늘렸다. 또, 기업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중앙부처에 방문 건의하는 등 소통 정책

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시는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수렴한 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해외수출을 가로막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해줌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청취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지역 기업이 우리 지역의 뿌리가 되어 우뚝 설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한국지엠 재단, 군산이동폭력 부모 교육사업 지원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이하 한마음재단)이 비영리법인 전북사회공헌협의회와 손잡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일조하고자 군산지역 아동학대 및 학부모 폭력예방 교육 사업에 후원하는 등 군산지역 어린이집 240개교 학부모 2만여명 대상으로 23일부터 4일간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아동학대 및 학부모 폭력예방 교육 지원사업은 비영리법인 전북사회공헌협의회, 비영리법인 전북자동차산업교육진흥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지엠한마음재단과 군산공장, 그리고 군산

시가 함께 후원하게 된다. 이동우 한국지엠 군산지역본부장은 이번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사업에 일조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사회에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기에 아동학대 및 학부모 폭력예방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군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일조를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내장산 단풍관광 전용열차 운영

10월 28일·29일·11월 4일·11일·17일 운행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한광덕)가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전북도가 대포관광지인 정읍 내장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단풍관광 전용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정읍 내장산 단풍관광전용열차는 오는 10월 28일, 29일과 11월 4일, 11일, 17일 등 총 5회가 운행되며, 총 3,000여명이 이용하여 정읍역에 도착하여 붉게 물든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된다.

특히 단풍 절정기인 11월 4일에는 무궁화호 12량을 연결한 장대열차에 870명(버스20대 규모)의 관광객을 싣고 내장산단풍관광 전용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하여 정읍역에 도착하게 된다.

한편, 단풍관광열차 뿐만 아니라 정기열차를 이용한 정읍 자유여행 특가상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 이 상품은 열차요금 최대50% 할인, 내장산입장권, 내장산비밀방, 정읍특산품을 접목한 '四季四色' 매력만점, 정읍내장산 자유여행상품으로 지난 추석연휴기간 400여명이 이용 바 있다.

한광덕 전북본부장은 "최고의 가을풍경을 자랑하는 정읍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산 근대문화유산, 익산 미륵사지 등 연계한 다양한 상품 개발로 전북관광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내 주요관광지 방문을 원하는 관광객은 렛츠코레일 (www.letsrail.com)에 접속해 예약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정읍역(☎063-701-8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진협 전북도회, 사랑의 집수리 준공식 가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이광환)이 최근 사랑의 집수리 준공식을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남원시협의회 회원들은 남원시 관내 저소득 27가구에 2,000만원 사업비와 회원들의 다양한 재능기부·봉사활동 등으로 쌓은 경력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직접 참여해 화장실을 새로 짓고, 도배·장판, 싱크대 외벽 도색 등 대대적인 교체와 수리가 이루어져 대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975년 단종전 산업 면허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

민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 운동으로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 등을 펼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광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취약한 주거환경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도내 전문건설인들의 마음을 모아 시작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지역사회 사랑 나눔의 씨앗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전문건설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가계부채, 1인당 2000만원씩 늘어" ... 30대 압도적

최근 5년간 대출자 한명 당 가계부채가 2000만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가계부채 대출자 1인당 평균부채금액은 7747만원으로 지난 2012년(5819만원)보다 1928만원(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30대 대출자 한명당 부채규모는 평균 7398만원으로 5년전(4967만원)보다 2431만원(48.9%)

증했다. 규모로만 보면 50대가 평균 919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대출금액은 1억 1672만원으로 1곳에서 대출받은 평균 금액 5348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금융업권별로는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비은행권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8032만원으로 지난 2012년(5064만원)보다 2068만원(34.7%) 늘었다. 은행 대출은 차주 한명당 평균 7299만원으로 같은기간 1696만원(30.3%) 증가했다.

/뉴시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식품기업 채용박람회 '호응'

우수한 일자리 창출·우수인력 역외 유출 방지

전세계 발효식품의 비즈니스 향연인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식품기업과 취업 준비생, 참가객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23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17 식품산업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는 전북 농식품산업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도내 식품기업에 우수인재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도내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두식품, 푸드웨어, 새마을식품, 참바다(영), 흥양산업(주) 등 도내 중견·중소기업과 전주 고용센터,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를 통해 우수인재 발굴은 물론 지역 식품기업의 인력채용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실제 행사장에 마련된 50개 부스에서는 현장 채용에 나선 지역 기업과 기관에서는 생산·연구·관리직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제 150명 채용을 목표로 서류전형 및 1차 실무면접을 진

행한 결과 약 30여 명의 우수인재가 전북지역 식품기업에 채용됐다.

이울러 노인, 여성, 장애인, 경력 단절자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전문 취업컨설팅팀들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클리닉 등을 진행하는 부대행사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운영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면접에서 기업의 사정조사와 대학 등 예비취업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취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취업 관련 지원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엑스포에서는 농식품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플랫폼과 창업컨설팅을 함께 추진, 창업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농식품 산업생태계 진입과 우수인재 유출을 위한 기회와 장을 만들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전북 농식품 산업의 구인인력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 알선, 교육 등 다양한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업연계 지원, 정부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국,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중앙회
전주농협농업동조합